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방향은 분명하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승자 독식에 따른 독선과 무능의 리더십에서 유능한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민폐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자 미래 선도의 정치 리더십을 지향한다.

1987년 체제의 핵심은 1인 장기집권의 방지였다. 당시 집권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야 해서 5년 단임의 암묵적 합의였다는 말도 있다. 제왕적 대통령과 승자독식의 제도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대통령으로의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정권 말기마다 교체 요구와 정치 보복으로 이어졌다. 진영 간 극단적 대립은 정치적 통합과 협력을 막는다.

여야가 5년 동안 죽어라 싸우게 하는 게 대통령이 되어 상대가 약이라는 선악 구도만 맴돌던 정치다. 최근에는 범조인 출신의 정치가 대세로 미래가 아닌 과거의 잘못만 따지는 과거 지향의 정치다. '갑툭튀의 끝판왕' 윤석열 캐리커의 등장과 계엄 그리고 탄핵은 겉은 승리와 책임 있는 패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체제가 보여주는 최악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죽음의 키스'라는 말을 듣는 이유다. OECD 37개 국가

2025년 정치 개혁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중에서 대통령제는 6개국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 사유화와 교착 정치의 상시화로 이어진다. 노무현의 '코드 인사' 이명박의 '고소영 강부자 인사' 박근혜의 '수첩 밀봉 인사' 그리고 문재인 의 '캠코도 인사'가 대표적이다. 교착 정치는 정치 실종이다. 직선 대통령의 권력은 국회 다수당과 대립한다. 일상화된 여소야대의 분절 정부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사라지고 극단적 대치와 교착 상태다. 우리가 본 거야의 입법과 대통령 거부 의 악순환이다.

결과를 정치의 사법화다. 정치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지 못한다. 협상과 타협 대신 법적 해결에 의존한다. 정치 쟁점이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대화와 통합 그리고 미래의 정치 리더십은 사라진다. 법적 공방과 정치적 책임 회피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냉소의 대상이 된다. 극단화된 팽팽 정치는 악화된다. 양당과 양 진영 모두 각자의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지향한다. 팽팽의 양당과 진영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줄인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주와 분열 그리고 내전의 정치다.

승자독식 구조의 핵심은 선거제도다. 정치적 양극화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드든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도 2위 이하의 표는 국정에 반영되지 못한다.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결합하면서 양당 중심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킨다. 지역주의 기반의 양당 체제는 기득권화되고 폐쇄적인 엘리트 구조로 변질된다. 양당의 극단적 대립과 양극화는 당연한 결과다. 어느 쪽이 집권하든 여당은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며 정책 보다는 정쟁과 대립을 주도한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포용적 정치 시스템과 포용

적 선거제도다. 민주주의를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체제라고 한다면 상호 존중과 인정을 전제로 공동체 기여를 위해 경쟁하는 것이다. 협조와 협치와 공존과 공영의 정치가 불가피 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결선투표 그리고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원칙인데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출발점이다.

국민여론도 후호적이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현 대통령제를 개헌해야 한다고 본다. 권한 축소한 대통령제의 선호가 가장 높아 7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 개헌 시기를 '다음 대선 전'으로 하자는 의견도 국민 다수다. 보수보다 진보에서 더 개헌을 원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 보다 더 개헌을 바란다. 헌정회 여야 위원들은 '선 개헌 후 대선'을 제안하며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라고 한다.

문제는 오해의 소지다. 이재명 대표는 '한가한 소리' '탄핵 관철에 집중할 때'라고 말한다.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몰타기를 의심한다. 탄핵 지연이나 권력 연장의 정략적 의도로 본다. 헌정 질서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말이지만 정대협 헌정회장은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 성급해진다고 진단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결집이 중요하다. 특히 100명이 넘는 수도권 의원들의 선택이 핵심이다. 영남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길림길로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 '공의 우선이나 사의 우선' 아니다. 2025년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등장을 기대한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2024년 12월 29일 아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소식을 접했다. 승객들이 안전하지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나의 기도도 응답은 없었다. 이를 전 라오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를 이용해서 귀국한 외손녀 소식을 듣지 못하셨던 외할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확인 전화를 하셨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가시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사고의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공항의 문제점도 파악하여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그 많은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가족들의 눈물을 닦고 위로해 주어야 할 이 나라의 정부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라오스에서 4개월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귀국할 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라오스의 젊은이들이 국가와 정부를 극도로 싫어 한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다른 나라에 속했다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해되기도 하였다. 라오스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월등이 떨어지는 것

구원과 무관한 능력

이 사실이다. 대부분 농경에 의지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주변국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K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층 더 위상을 높여주는 위대한 업적이 되었다. 그런데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있던 날 우리나라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란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통령 부부를 보면서 성경의 인물이 자주 떠오르곤 하였는데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왕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바로 아합왕이다. 그는 선대왕들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데 시돈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녀의 친정은 바알우상의 왕국이었으므로 그녀는 아합에게 시집와서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사당을 만들고 사당 안에 바알의 제단을 쌓았으며 또 다른 우상인 아세라를 만들어 섬겼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 보다 한 술 더 뜨는 악녀 중의 악녀로서 마치 악을 행하기 위해 태어난 여인 같았다.

왕궁을 우상숭배의 전당으로 만든 것처럼 대통령실을 무속이 판을 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그 시대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아합왕 때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러한 악을 통쾌하게 물리쳤는데 지금은

강하게 쓴소리 한 번 못하는 것 같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이세벨의 바알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통쾌하게 물리치고 그들 모두의 목을 베어 처단하는 장면이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보다 더 큰 승리가 아닌가 싶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사백오십 명의 바알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응답하는 신이 이기는 대결이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데 사백오십 명의 바알선지자들이 먼저 호들갑을 떨며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한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내게 응답하십시오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의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환은지라."

귀신이 있고 무속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구원과 무관한 능력이다. 많은 이들이 순간의 이익과 영달을 위하여 너무 심취해 있지 않았으면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반드시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가져올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했다.

권력과 함께 있어야 그 힘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 편에 있어야 그 힘이 영원할 것이다. 교회는 그레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레야 한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따름하게 호통 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기고



이중섭 소설가

베란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에 달려든다. 화분 속 호랑가시나무 잎들이 웅크린 채 쳐다본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속보로 정신없다. 지난해 막바지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에 국회에 의해 해제되었다. 정국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한해를 마감하러 싶더니 막바지에 여객기 사고가 터졌다. 인명 피해가 극심한데 세상이 눈물 흘릴 짝도 없이 빠르다.

멍하니 화분 속의 나무 열매를 본다. 고향 앞산의 멍 감이 떠오른다. 어느새 설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제 부모가 계시지 않으니 고향 가는 발걸음도 함께 멈췄다. 지난 설날 일들이 꿈처럼 아득하다.

해마다 설날 아침 세배를 마치고 마을 뒷산 남쪽골으로 향했다. 차를 멈추고 아들과 함께 유자나무가 울창한 밭을 둘러보곤 했다. 바닷가인 고향 마을 밭들은 유자나무로 가득 차 있었다. 유자나무를 자세히 보면 겉보기와 다르게 오래된 나무들이 꽤 많았다. 유자나무 고목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마저 나이 든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밭길은 앞산 신선바위에 오른다. 사람의 왕래가 없

겨울 숲속 멍감처럼

어역새와 가시나무와 덩굴식물이 무성했다. 가을이면 산딸기로 술을 담으려던 마을 동생이 뱀 때문에 산에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할 정도였다. 수풀이 험려진 남녘의 겨울 산은 하얀 마른풀만 유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아빠 이거 뭐야?" 가만히 따라오던 아들이 물었다. "멍감" 청미래덩굴을 고향에서는 그렇게 불렀다. "작은 사과 아니야?" 빨간 열매가 쫓겨와 열매를 닦기는 했다.

"먹을 수 있어?" 한번 먹어 보라며 웃고 말았다. 어린 시절에는 배가 고플 때 멍감도 훌륭한 군것질거리였다. 한참 씹다 보면 뚝뚝이 허기진 우리 몸에 양분이 되었다. 봄날에 씹어대던 빨기도 마찬가지였다. 산새도 날지 않고 마른 잡목만 무성한 농촌의 겨울 숲에는 멍감만이 오직 홀로 빨간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

고향의 겨울 숲에는 그래도 물줄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나무들이 있다. 죽순처럼 한줄기로 자라는 아카시아는 보이지 않게 푸른 숲소리를 공기 속으로 내뿜고 있었다. 조금 튼튼한 줄기를 잘라 칼싸움하던 기억이 새로웠다. 아카시아가 즐기는 낫으로 꺾질을 벗기면 처음에는 초록 속을 보이다가 다음에 하얀 속살을 드러낸다. 하얀 마른나무와는 또 다르게 싱싱한 순백의 나무줄기가 찬 공기 속에 검처럼 빛을 내곤 했다. 겨울 숲에서 가시를 달고 죽죽 뺏는 아카시아를 보면 마치 갑옷에 긴 창을 든 병사가 연상되곤 했다. 사람들은 떠나고, 말 없는 것들만 겨울 숲에서 농촌을 지키고 서 있었다.

마을 뒤 문중 산에 지어진 남쪽골 지붕에는 검은 기와가 햇빛에 반짝거렸다. 시골 집성촌마다 새롭게 지

어지는 남쪽골,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후를 대비한 망자의 집이 봄 때마다 낯설었다. 부모가 저곳에 언제 안착할까 싶던 때가 잊게 갈데 어느새 부모 모두 그곳에 자리를 잡은 지 두 해가 넘었다. 나 자신 서울살이에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을 자주 찾지 않는데 내 자식은 또 얼마나 가끔 이곳을 올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앞산을 내려와 마을 뒤편 골목길로 들어섰다. 동네는 행하니 비어 있는 집들이 많다. 가와집으로 가세가 우렁찬던 큰집은 행랑채가 무너져 있었다. 집 뒤 푸른 대나무도 꽃이 피어 피폐한데 커다란 뽕나무 집자키이로 대나무 울타리를 넘나드는 소문만 들렸다. 그 아래 십이네 집터는 이미 시멘트로 덮여 있고, 미국으로 이민 떠난 북이네 집 양철 지붕은 녹이 슬었다. 그 많은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몇몇 친구는 어린 나이에 밭하늘에 별이 되었다. 나머지 아이들도 새가 되어 도시로 날아가 버렸다. 시골 풍경이 낯선 데다 너무 심한 아들이 벌써 서울 집에 돌아갈 생각으로 바쁜 모양이다.

"아빠! 내 고향 서울에 언제 올라?" 지난 설날의 추억을 떠올리다가 다시 베란다 화분 속 호랑가시나무를 들여다본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여객기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쏟아진다. 하얀 줄기를 덮는 진초목의 잎 사이로 자잘한 열매가 눈에 띈다. 고향 산속의 멍감처럼 붉다. 아직은 빨갭게 살아 있어야 할 희생자들 생각이 겹겹히 눈시울이 뜨겁다. 겨울 눈 속의 마른나무 사이에서도 붉게 빛나던 멍감처럼 살아있는 자들은 매양 그랬던 것처럼 또 묵묵히 걸어와 한다.

社說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광주·여수에도 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설치된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흙을 쌓아 로컬라이저를 설치해 일명 '콘크리트 둔덕'으로 불리는데 대규모 희생자를 낸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콘크리트 둔덕이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도 설치되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다. 모두 비슷한 구조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흙을 쌓고 로컬라이저를 설치했는데 무안공항은 높이가 2m인데 반해 여수공항은 4m, 광주공항은 1.5m로 세워져 있다.

무안공항 사례에서 보듯 콘크리트 둔덕은 사실상 시멘트 벽이라 여객기가 건물에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 원래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에 부딪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데 유독 광주·전남지역 3개 공항 모두에 흙기와 같은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치돼 있다. 타 지방공항 가운데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곳은 포항경주공항 정도이다. 김해공항은 로컬라이저가 2m의 금속재질로 돼 있고 제주공항은 철제 구조물(허브)위에 설치돼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대구공항 등 나머지 대다수 공항도 지면 위로 노출된 별도의 구조물 없이 평지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결국 인제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항공 참사도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운 만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로컬라이저를 비롯해 국내 모든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시작했다. 차체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설계와 시공이 다른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 조사는 별개로 광주와 여수공항 등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은 당장 철거해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내란 수괴' 尹, 지지자 자극해 내전 부추기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그제 서울 한 남동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담한 A4용지 메시지에서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협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며 경호처와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을 불리적으로 막으라는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측의 영장 집행 방해는 참으로 비굴하고 비겁한 선동행위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내란사태 이후 지금까지 수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어

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법원의 체포·수색영장이 발급되자 급기야 극단적인 극우 세력을 동원해 체포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신년 여론조사에도 확인됐듯 극우 세력을 제외하면 국민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나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관저에 숨어 극우 동원령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니 비겁하기 이를 데 없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발부된 법원의 영장 집행에 모두 응했다. 내란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조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에 나서자 순순히 질 부모로 나와 체포에 응했다. 아무리 최악의 대통령이더라도 이 처럼 저급한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 내란을 도모했다 실패하자 이전 내전을 부추기는 것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땀땀하게 나서라.

無等鼓

어느 때처럼 평범한 밤이었다. 광주FC가 상하이 하이강과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ACLE) 스테이지 6차전 원정경기에서 아쉽게 동점골을 허용하는 장면을 보면서, 무승부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보고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다. 여유롭게 해외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를 보고 있던 밤이었다. 특별한 것 없는 보통의 밤이었기에 믿을 수 없는 뉴스였다. 계엄 선포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일상이 멈췄다. 한가하게 축구 결과를 전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날 밤 사무실로 달려가 긴 박박한 국회의 밤을 신문 호외에 담았다.

다행히 목숨을 걸고 국회 담배락을 넘은 국회의원들과 맨몸으로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를 막아선 이들이 있어, 우리들은 포고령 위반으로 '처단' 당하지 않고 위태위태한 12월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완벽한 일상의 회복은 아니었다. 매일 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선잠을 잤다. 밤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것 아닌 가라는 걱정에 잠을 설쳤고, 연말의 들쭉임은 없었다.

보통의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늦은 오전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떴다. 일요일의 느긋함 속에 뉴스를 확인하던 순간 겨우 되찾았던 일상이 다시 멈췄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뉴스였다. 탑승자 명단에서 각별했던 이와 그의 가족들이름을 확인한 순간 평범했던 일요일은 잊을 수 없는 악몽의 날이 되고 말았다.

5·18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면서 힘든 12월을 보낸 광주는 다시 깊은 탄식에 빠졌다. 소중한 가족, 친구, 연인, 동료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비행기에 올랐을 이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끔찍했던 사고에 문 호외에 담았다.

아직 부고조차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작별의 시간을 갖지 못한 남은 자들이 황망함으로 기다리는 새해 소식이 부고 소식이라니..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맞았을 1월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조심스럽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이어 일상을 흔들었다.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일상의 인사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추운 겨울이다. /김여울 채육부 차장 wool@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title 'The Kwangju Ilbo' and Korean title '光州日報'.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disclaime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